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카타르 해군사령관과 국방·방산 협력 논의

카타르를 방문한 양용모 (왼쪽)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압둘라 하산 알슬라이티(소장) 카타르 해군사령관과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해군 제공

# 첨단과학기술 기반 육군 구현 위해 전문가 모였다

육군,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 세미나  
무기·전력지원체계 접목 방안 모색

육군이 첨단 전력체계 시대에 맞춘 시험평가·감항인증 분야 발전을 위해 군 내외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았다. 육군은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최정에 육군 구현을 위한 ‘육군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현석(중장) 육군참모차장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 관련 민·관·군·산·학·연 전문가가 3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비약적으로 발전 중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수직이착륙항공기,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등 기술을 미래 육군의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최정에 육군 구현을 위한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이종화(준장) 육군 시험평가단장의 환영사와 고현석 육군참모차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의 축사에 이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육군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 세미나’에서 이종화 육군 시험평가단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육군 제공

어 기조강연, 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가 ‘AI 안정성 확인을 위한 시험평가 필요성 및 실시 사례’를 주제로 AI 발전에 따른 선제적 안정성 확보 방법과 사례를 발표했다.

이병길 현대자동차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개발추진팀 파트장은 ‘AAM 개발 생태계 및 추진 현황’을 주제로 AAM의

주요 기술, 발전 방향, 군사적 활용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

주제발표 및 토의는 ‘시험평가’와 ‘감항인증’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험평가 세션에서는 시험평가를 통한 AI 무기체계 안전성 향상 방안, 자율주행 무기체계, 디지털트윈, 가상환경 기반의 신개념 무기체계 시험평가 방안을 논의했다.

감항인증 세션은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

발 동향, 소형무인기 감항인증 기술기준 적용 방안, 무기체계 신속획득을 위한 감항인증 제도 발전 방안 등 깊이 있는 토의를 거쳐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 단장은 “세미나를 통해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험평가 방법을 공유하고 무기체계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 물샬틈없는 해안경계작전을 위해...

육군2작전사, 해경과 전술토의

육군2작전사령부(2작전사)는 24일 사령부에서 해양경찰(해경)과 함께 해안작전 관련 협력·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해안경계작전대세 확립 전술토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의에는 고창준(대장) 사령관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양측 해안작전 관계관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원거리 이동 소형레저선박 식별을 위한 공조 △감시장비 영상 공유 △해상 밀입국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세 가지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2작전사와 해경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을 위해 감시장비 영상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유사시 원활한 협조 체계와 군과 해경 전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영상 공유 제공 범위 및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 대해서도 열띤 토의를 벌였다.

고 사령관은 “이번 토의를 통해 2작전사와 해경 간 해안경계작전의 적시성·정확성을 확보해 상황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적 침투와 밀입국 등 다양한 해안 상황에 대비한 주기적인 전술 토의와 통합방위 훈련 등을 통해 완전작전으로 상황을 종결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 적과 싸워 이길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육군5군단, 승진 과학기술강군 공모전

육군5군단은 지난 23일 군단 사령부에서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현장 부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김성민(중장) 군단장 주관으로 ‘2024 승진 과학기술강군’ 공모전 발표 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회에 참가한 장병들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플랫폼, 능동형 지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특히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아이디어가 결선에 올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발표 후 심사위원들은 적합성·현실성·효



육군5군단 사령부에서 열린 승진 과학기술강군 공모전 발표대회에 참가한 장병들.

부대 제공

율성·창의성 등의 항목에 점수를 매겼다. 육군6보병사단 이상윤 상병은 “방공작전 통제소에서 현행작전 임무 수행 중 부대원들과 고민해오던 주제를 발표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성원 기자